

ESCAP에너지 報告書

ESCAP (유엔 아시아·太平洋 經濟社会 委員會)는 최근 域内 각국의 협력체제 강화를 권고한 年次報告와 함께 「ESCAP 地域에서의 短期에너지政策」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太平洋 諸國에 석유위기가 끼친 영향을 분석, 앞으로의 에너지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역내 각국이 취해야 할 政策 方向을 제시한 것으로서 3월10일부터 21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제37회 총회에 토의 자료로 제출되었다. 연차 경제보고서와는 별도로 에너지 問題에 국한시켜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ESCAP역내 제국이 제1차 석유위기(73-74년) 이후, 일부에서는 經常收支惡化를 초래한 국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으나 제2차 석유위기(79-80년) 이후에는 석유가격의 상승을 극복하지 못해 對外債務 증대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역내의 개발도상국이 국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 이를 위해 각국 경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代替에너지 開發에 힘쓰는 한편, 에너지의 有効이용에 全力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의 有効이용을 위해 量과 價格의 양면에서 需給管理政策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量的管理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은 그 波及效果가 크므로 공공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이나 농촌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SCAP의 「에너지 報告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原油價格 상승의 영향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에 의해 원유가격은 사

우디 원유 기준으로 73~75년의 3년 동안 연평균 95%의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이같이 비싼 원유는 개발도상국에 있어 인플레이 및 國際收支의 악화와 생산활동 등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原油價格의 상승은 역내 각국에, 인플레이 진행과 세계 경기의 후퇴에 따른 수요 감퇴를 가져왔다. 세계 수출 연평균 신장율은 70~72년의 9.0%에서 74년에는 4.6%로 저하되고, 75년에는 마이너스 3.6%로 떨어졌다. 이것을 반영하여 역내 개발도상국의 輸出價格指數도 74년은 前年對比 40.0% 상승했으나 75년에는 7.9% 하락했다.

석유수입대금의 지불을 보면, 역내 각국의 原油輸入比率 (총 수출액에 차지하는 석유수입대금의 비율)은 74년 이후 크게 올랐으나 각국의 노력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國別 對処狀況을 보면, 印度는 75년에 31%까지 상승했던 원유 수입비율이 수출의 증가로 76년에는 24%로 내려갔다. 韓國은 74년에 원유수입 증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그 후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원유수입비율은 75년의 26%에서 78년에는 18%까지 개선되었다. 필리핀의 원유수입은 74년에 급증하여, 원유수입비율도 전년의 10%에서 24%로 상승했으나, 75년 이후는 저하되고 있다.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상수지 적자 총액은 73년 26억달러에서 74년에는 99억달러, 75년에는 88억달러로 늘어났다. 76~77년에는 15억달러까지 감소했으나 제2차 석유위기의 발발로 79년에는 1백35억달러에 달했다. 이것은 각국 공공의 援助의 도입과 오일달러의 還流에 의해 74년 이후도 석유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 對外債務가 累積되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외채무 상환 비율은 74년부터 78년에 걸쳐 방글라데시가 5.5%에서 13.7%로 상승한 것을 비롯, 필리핀, 버마, 파

키스탄 등이 일제히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공적 국제기관에 의한 보다 안정된 원조의 增額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 需給管理

단기적으로 보아 石油가 역내 에너지源으로서 불가결한 것임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다만 수입 석유에의 依存度를 낮추기 위한 국내 고유의 에너지개발 가능성은 있다. 예를들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泰國의 天然가스, 필리핀의 地熱, 파푸아·뉴기니아의 알콜, 그 외 일부 諸國의 水力發電이다.

정책담당자는 에너지정책의 波及效果가 큰 점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만 할 것이며, 分配와 價格決定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및 공평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광열비 상승은 저소득층의 가계를 크게 압박한다. 예를들면 등유에서 디젤유로 消費移行을 촉구하기 위해, 등유가격을 올린다면, 농촌과 도시의 저소득층을 바로 괴롭히는게 된다.

역내에서는 아직도 소득의 不公平 配分이 남아 있고, 시장도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가격정책만으로 에너지의 효율이용을 도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量的規制는 큰 효과를 갖는다. 다만 그 경우, 사회복지상의 배려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석유, 석탄, 전력 등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체를 包括的으로 묶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급량의 관리방안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輸送部門.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는 역내 8개국에서 보면 전 에너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개개의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일정량의 에너지配給을 하여, 그 배급을 받을 자동차의 車主는 남은 가솔린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는 방법이 고안될 수 있겠다.

연료 효율이 나쁜 現存 旧型設備를 효율이 좋은 새 설비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정책담당자의 딜레마중의 하나이지만, 개발도상국의 자금사정을 생각하면, 新規投資의 효과가 비약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구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송부문과 같은 경우 개인자

동차는 구식을, 공공수송용은 신식자동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域内 國際間 協力

역내의 에너지 수입은 거의가 石油이다. 개별 국가의 수입량은 비교적 소량이나, 일괄한다면 規模經濟의 利點을 살릴 수 있다.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파는 쪽과 사는 쪽 쌍방이 한번에 대량 거래를 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역내의 개발도상국이 一括購入協定을 체결하는 것은 검토 할 가치가 있다.

原油 운반에는 대형 탱커, 초대형 탱커를 사용하면 수송코스트가 낮아진다. OAPEC(아랍 石油輸出國機構) 제국은 원유공급에 대형 탱커 共有를 실현하고 있다. 역내 제국도 공동으로 석유공급국과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고, 탱커의 공유도 한 방법이다. 또 산유국과 安定價格으로 長期的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며, 이미 ASEAN(동남아시아 제국연합)역내, 韓國과 中東, 中共과 ESCAP 역내국가의 사이에는 일부 실현되고 있다.

水力發電은 발전소 건설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電力을 한나라 내에서만 소비하는 자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輸出商品으로 생각한다면 역내 협력의 큰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미 국제협력 결과로 이루어진 메콩江하류의 남담법은 해당국인 라오스 뿐만 아니라 泰國에도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히말라야지역은 수력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댐 건설에는 국제적, 역내 간의 資本·技術협력 이 필요하다.

역내 개발도상국에서는 바이오매스(동식물의 有機物을 이용하는 化學에너지)등의 에너지가 料理用 燃料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유효이용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크다. 역내에서는 이미 열효율이 좋은 곤로가 개발되어 있지만, 아직도 개량의 여지가 있고, 이 개량 혹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역내의 研究開發, 제품의 생산협력력이 고려될 수 있다.*